"百日法問, 현대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

서재영 연구원, 17일 백련재단 학술대회서 발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중심으로 이전 50년은 봉건성을 벗고, 근대불교를 구축하기 위한 실험적 기간이었다. 그리고 백일법문 이후 50년은 근대불교를 청산하고 현대불교를 정립해 온 과정이었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근대불교를 청산하고 현대불교를 열어가는 데 있어 사상적 근간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사진〉은 11월 17일 (재)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개최한 '퇴옹 성철과 현대 한국불교의 정체성' 주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근현대불교에서 퇴옹 성철의 역할과 백일법문의 위치'에서 해인총림 설립 이후 설해진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 지를 조명했다.

일제강점기와 함께 도래한 근대 공간에서 한국불교는 "정체성이 해체되고 왜색 불교가 덧칠됐다"고 지적한 서 연구원은 해방과 6.25 전쟁 이후인 1954년부터 17년 간 진행된 정화운동이 탈근대적 운동이자, 한국불교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당시 정화운동은 근대불교를 부정하고 단절하는 방향으로 전개됐고, 이로 인해 현대 한국불교는 대처승 점유 사찰을 되찾아오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바닥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한계 상황에서 정화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안으로는 승단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해인총림의 설립이었다는 게 서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성철 스님 역시 해인총림에 대해 "승가 정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한국불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서"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총림이라는 외형적 틀은 존재했으나 그 그릇에 어떤 사상과 수행가풍을 채울 것인가는 과제로 남았다. 이 같은 과제에 응답해 총림의 사상적 내용을 채운 것이 백일법문이라는 게 서 연구원의 주장이다.

서 연구원은 "해인 총림은 정화를 통해 달성한 현대불교의 최대 성과였고, 해인총림이라는 그릇에 사상적 내용과 방향을 채운 것이 백일법문이었다"면서 "백일법문은 근대불교를 청산하고 현대불교를 열어가는 데 사상적 근간이 됐다"고 강조했다.



해방 後 이어진 정화운동 17년
불교 전통 퇴색, 방향성 사라져
해인총림 설립, 한계 극복 조치
백일법문, 총림에 내용 채운 것
"백일 장광설, 불교 지향점 제시"

또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은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저작이라고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백일법문 이전까지 승가교육 내용은 500년 된 교육과정에 토대를 두고 있어 전체 불교사상을 포괄하지 못했고, 현대적 불교관도 제시할 수 없었다"면서 "성철 스님은 전체 불교사상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근대적 성과까지 담아내 불교사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일법문은 현대불교의 탄생과 정착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 정신세계를 뒷받침했다"면서 "백일법문은 시대적 산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시대를 이끌어 왔으며,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가 지향할 길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종수(순천대 사학과)의 '봉안사 결사의 배경과 불교사적 의미' △조기룡(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해인총림 결성의 배경과 현대적 의의- 퇴옹성철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박인석(동국대 불교학술원)의 '퇴옹성철의 선문헌 번역사업의 내용과 의의'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시대 제작 사찰 소장 목판들 보물된다

'묘법연화경 목판' 등 9건
문화재청, 보물 지정예고

전국 사찰 소장 중인 조선시대 제작 목판 9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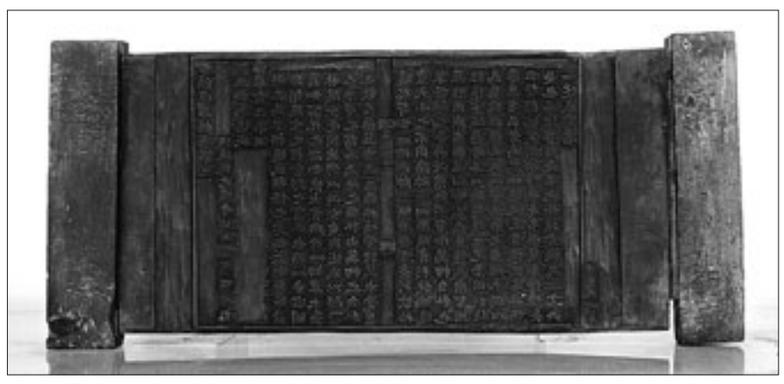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해남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 등 사찰 소장 목판 9건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된 사찰 소장 목판들은 문화재청이 비지정 사찰 문화재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성과이다.

2014년과 2015년에 조사한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있는 사찰에서 소장한 목판 중 완전성, 제작 시기, 보존상태,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 9건을 최종 선정했다.

해남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1450년 문종의 병세가 나빠지자 안평대군 이용 등이 발원해 활자로 새긴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 〈묘법연화경〉을 명종 16년(1561년)에 전남 장흥 천관사에서 목판에 새긴 것이다.

갑인자본 계열 〈묘법연화경〉은 황해도 자비령사(1493년), 충청도 무량사(1493년), 경상도 신흥사(1545년) 등지에서 간행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유일본이자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전래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해남 대흥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 문화재청은 11월 14일 사찰 소장 목판 9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아산 세심사에 소장돼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은 1545년에 오응성이 한글로 옮긴 판본을 기본으로 하여 판각한 것으로, 현존하는 언해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오래됐다. 문화재청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언해본 경전의 현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서산 개심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은 고산 화암사판을 바탕으로 명종 20년(1565년) 충청도 가야산 보원사에서 다시 새긴 것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성달생계 묘법연화경 목판 중 강화 전등사가 소장한 〈묘법연화경 목판〉과 더불어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판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초심학인문 목판〉은 선조 17년(1584년)에 서산 개심사에서 제작한 목판으로 병충해나 균열 등이 없어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현존 〈계초심학인문〉 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목판이기도 하다.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은 선조 13년(1580년) 가야산 보원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총 5판 중 1판이 결판돼 현재 4판이 서산 개심사에 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에는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이 목판으로 간행된 사례가 매우 드물며 개심사 소장본이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본이자 가장 오래된 목판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은 선조 17년(1584년) 개심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6판이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중 가장 완전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주목된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선조 10년(1577년) 충청도 서산 가야산 보원사에서 다시 판각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26판이 완전하게 소장돼 있다. 원래의 목재 형상을 목판으로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다양해 조선시대 목판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예고된 사찰 소장 목판 9건에 대해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발전 우바이들의 신행을 논하다

불광연구원, 24일 학술연찬회… 실상화 보살 1주기 맞아

여성불자 모임 불이회와 (재)보덕학회를 설립한 실상화(윤용숙) 보살의 1주기를 맞아 근현대 불교 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1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을 주제로 제34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 대학 강사가 '초기불교의 재가여성들: 후원자, 수행자, 전법자로서의 역할과 힘'을,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근현대 여성불교 운동단체와 그 주역'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실상화 윤용숙의 삶과 나눔불사'를,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이 '한국 여성불자의 현실과 미래 전망'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종합토론에는 김현선 여성문제연구회 서울지회장, 이혜숙 금강대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제발표자들과 함께 여성불자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연찬회에 대해 불광연구원은 "여성불자를 주제로 경전에 나타난 여성불자의 위상과 역할, 불교의 여성담론, 근현대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여성불자들의 삶과 신행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려 한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여성불자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잡아가야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경론 번역서 사용된 한글 술어는?

동국대 티베트대장경역경원, 12월 1일 학술세미나

경론 번역에 한글 술어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오는 12월 1일 오후 1시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2017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경론 번역에 사용된 한글 술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원전어에 해당하는 범어와 빨리어, 한문원전 등의 불교경론을 번역하면서 사용된 한글술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글술어를 위주로 한 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논의한다.

세미나에서는 심재관 강릉대 교수가 '범어본 경론의 번역에 사용된 한글술어'를, 임승택 경북대 교수가 '빠띠삼 바다막가 역주에 사용된 한글술어'를 발표한다. 이어 이인혜 동국대 연구원이 '북한 선역본 팔만대장경의 한글술어'를, 강명희 동국대 교수가 '한글대장경 유가사지론의 한글술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티베트대장경의 본격적인 역경에 앞서 기존 역경작업에서 사용된 한글술어를 정리함으로써 한글술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역경원에서 준비하는 한글술어를 기반으로 티베트대장경을 번역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불교원전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한글술어를 가능한 많이 사용한 번역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으로 불교한글술어를 개발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티베트대장경을 번역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근본경전연구회 깨달음 주제 학술대회

부처님의 생전 가르침이 담겨 있는 근본경전 4부 니까야와 율장으로 '깨달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열린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주지 뿐냐디빠)은 11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처를 만드는 깨달음(근본경전이 말하는 확정적 결론의 제시)'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주지 뿐냐디빠 스님의 기조발표로 시작해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심층토론에는 청경 스님(칠불사), 선엽 스님(구봉암 주지), 김재욱(근본경전연구회), 최광옥(근본경전연구회)이 참여한다.

뿐냐디빠 스님은 "깨달음에 대해 부처님의 생생한 언어가 담겨있는 니까야로 정의하고자 한다"며 관심을 독려했다. 031)573-4284

하성미 기자

참 나를 찾는 90일간의 여정

불기 2561(2017)년

재가(在家) 동안거 수행결사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되시길 발원합니다.

■ 수행기간 불기2561(2017)년 12월 2일(토) ~ 불기2562(2018)년 3월 2일(금)

■ 대 상 안거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신도

■ 방 법
- 부처님의 제자임을 자각하는 [삼 귀 의]
- 나와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 [수행서원문 염송]
-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1일 1선행]
- 대중의 역량에 맞추어 수행하는 [선택수행]

■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051)501-7554

■ 동안거 입재식
- 일 시 : 불기2561(2017)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홍법사 대광명전
- 법 문 : 심산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 90일 수행이력 성취시 안거증이 수여됩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2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언 제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1월 20일 〈3주간〉
모 집 인 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가)
수 련 회 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방한모 · 방한장갑 ·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매주 토요일 11시에 합니다.

일 과 표

시간	내 용
5:00	기상
5:30	새벽 예불 / 좌선 / 걷기명상
6:20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9:00	불교 강의
10:00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11:00	108배
13:00	독서와 사색
14:00	요일에 따라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효도마사지, 예절교육, 호신술, 트래킹
16:30	울력 (도량 청소 및 정리)
17:10	저녁 공양
18:30	저녁 예불

■ 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아성찰 : 힐링 명상, 요가, 자자회

■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